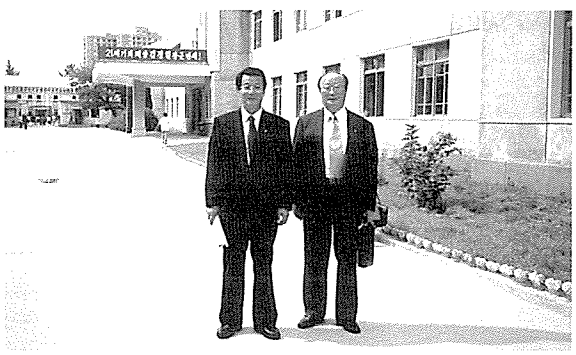
"기생충 없는 한반도 만들기"

건협 임한종회장, 하성미 총장 방북. 북측 전문가와 결의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한민족 복지재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종 회장과 하성미 사무총장은 북측 전문가 나순영 박사를 만나 평양 고려호텔에서 3회에 걸친 회의를 갖고, '기생충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양측은 13세 미만의 북측 취학 어린이 250만명에 대한 '근본적인 집단 구충'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36면)

한편 북측의 나순영 박사(조선 기생충 학회장)는 임회장 스승이자 선배(서울대 의대)로 밝혀져, 분단 이후 만나지 못했던 사제지간의 감격적인 상봉도 이번 만남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산가족 방문단 무료 검진

한국적십자사와 협약 체결, 지난 9월 22일 2차 방문단 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9월 19일, 대한적십자사와 남북 이산 가족 방문단 건강 검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협은 앞으로 이산 가족 방문단 후보자로 선정되는 모든 이산 가족에 대한 건강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협은 9월 19일 컴퓨터로 추첨된 제 2차 남북 이산 가족 방문단 예비 후보자 300명에 대한 무료 검진을 9월 22일 협회 14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실시했다.

7백여 건협인, 하나 된 마음으로

건협, 2000년도 직원 연수 교육 실시

지난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3차에 걸쳐 강원도 낙산에서 있었던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 연수 교육은, 700여 직원이 오랜만에 하나 된 마음으로 의기를 투합하고 휴식을 통해 새로운 힘을 다져 나가는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에서 하성미 사무총장은 정신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협회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주인 의식을 갖고 21세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협, 더욱 발전되고 미래 지향적인 건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수 교육에서는 '99년도 지부 운영 관리 평가 우수 지부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 연수 교육 참가 직원 대표의 선서

▲ 직원 대표에게 건협 뱃지를 달아주고 있는 하성미 사무총장

▲ 지부 운영관리평가 우수지부시상.(사진: 최우수 지부로 선정된 서울 지부)